

애너하임서 210만 달러 예술품 절도 사건

제보로 조각상 2점 회수...용의자는 체포 못해

애너하임 경찰은 도난당한 대형 예술 조각상 2점을 회수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회수된 조각상은 높이 약 8피트에 달하며, 두 작품을 합친 시가는 약 210만 달러에 이른다.

애너하임 경찰국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제보 덕분에 애너하임의 한 주택에서 조각상이 발견됐다"며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절도는 6월 14일~15일, 터스틴 애비뉴와 91번 프리웨이 인근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지게차를 포함한 중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맷 서터 경사는 "도난당한 작품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범인은 사전에 조각상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은 비교적 조용한 곳으로,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난당한 작품은 저명한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대니얼 윈 경의 조각상들로,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 측에 따



▲ 회수된 조각상 중 하나인 대니얼 윈 경의 "양자역학: 남자"

르면, 그중 한 작품은 약 2,000파운드, 다른 하나는 무려 4,000파운드에 달한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윈 작가는 처음엔 탐욕스러운 개인 수집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예술품 회수 전문가들은 작품이 고철로 분해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시할 때 이 조각상 하나를 옮기려면 남자 12명과 지게차 2대, 평판 트럭이 필요하다"며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윈은 베트남 출신의 난민으로, 현재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윈 슬래빈 파인아트' 갤러리의 소유자다. 이달 초에는 존 웨인 공항의 예술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투자 가치가 높은 '블루칩'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례적인 이번 절도 사건은 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고가의 예술품 창고들의 보안 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지역 비즈니스들에게 감시카메라 설치 등 보안 강화를 권유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경찰은 조각상이 발견된 주택의 구체적 위치나 용의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시장이 갱단에 "거리 장악" 촉구 논란

이민국 "법집행관 대상 폭력 선동" 반발 쿠다히시 "공식 입장 아냐"

LA카운티의 소도시 쿠다히의 신시아 곤살레스 부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지역 갱단들에게 거리 장악에 나서라고 촉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서 곤살레스 부시장은 "너희들은 동네를 전부 낙서하며 너희 구역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가장 큰 갱단이 들어와도 말 한 마디 없다"며 "갱단과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만 나서서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상 연방 이민 단속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캘리포니아 쿠다히 부시장 신시아 곤살레스의 발언은 경악스럽다"며 "그는 18개 갱단을 포함한 범죄 조직에게 ICE 요원들을 향한 폭력을 선동했다. 이러한 발언은 ICE 요원을 향한 폭력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실제로 공격 건수가 50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쿠다히 시정부는 논란이 된 영상에 대



▲ 신시아 곤살레스 부시장. 사진=City of Oudahay

해 입장을 발표하고 "곤살레스 부시장의 발언은 시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쿠다히 주민 낸시 벨 가도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말은 정말 무책임하다. ICE 단속도 불안한데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근 헌팅턴파크의 아르투로 플로레스 시장은 곤살레스를 옹호하고 나섰다.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왜곡됐다"며 "나는 그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결코 폭력을 선동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플로레스 시장은 곤살레스 부시장이 지역 청소년들을 갱단과 거리를 두게 하고 고등 교육을 장려해온 공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의 반응은 정반대다. LA경찰보호연맹은 성명을 통해 곤살레스 부시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경찰과 법집행관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다"며 "그녀의 행동은 비열하며 불법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휘텍골프 714.859.3397 / 213.327.4080

▶예약하시면 기다림 없이 편안하게 피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EST. 1996 **FITECGOLF**

한국티칭프로협회 마스터프로 **체계적인 골프레슨**

- 1:1 집중레슨
- 스윙분석을 통한 정확한 스윙교정
- 단기간 비거리 증가
- 정확도 향상 프로그램
- 주니어 선수 특별레슨

GRAND OPENING EVENT!

Event 1 **1회 무료 원포인트 레슨**

Event 2 **클럽, 스윙분석 무료 피팅 진행시 up to 20% 할인**

Event 3 **맞춤클럽 한정 프로모션 드라이버 \$199 아이언 세트 \$599 예약 필수!**



Yeseo Yi Carleton College fitecgolf.com



Yerim Yi Pomona College



Jeissy Lee Clairmont Meckena College

Congratulations!!!- 명문대 골프 장학생 입학!

PRGR ふわり FOURTEEN VOICE CADDIE

골프를 제대로 배우는 곳! 눈에 띄는 실력 향상! 8225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Fitecgolf.com **휘텍골프**